

여성의 날 기념 핀버튼

>>여성의 날이란?

여성의 날은 여성의 업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꺾기한 날을 기념하여 1909년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에 영감을 얻은 유럽이 1910년 8월 덴마크에서의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여성의 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11년부터 여성의 참정권, 노동권, 차별 철폐를 외치는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 핀버튼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모음>이 오늘 나누어 드린 핀버튼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여성의 날의 상징에는 빵, 장미 등이 있는데,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배경의 푸른 장미를 통해 여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중앙의 WITH YOU는 '당신과 함께'로, 여성들 간의 연대를 상징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싸웠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모음>이 학내 여성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성의 날 기념 핀버튼

>>여성의 날이란?

여성의 날은 여성의 업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꺾기한 날을 기념하여 1909년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에 영감을 얻은 유럽이 1910년 8월 덴마크에서의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여성의 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11년부터 여성의 참정권, 노동권, 차별 철폐를 외치는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 핀버튼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모음>이 오늘 나누어 드린 핀버튼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여성의 날의 상징에는 빵, 장미 등이 있는데,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배경의 푸른 장미를 통해 여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중앙의 WITH YOU는 '당신과 함께'로, 여성들 간의 연대를 상징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싸웠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모음>이 학내 여성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성의 날 기념 핀버튼

>>여성의 날이란?

여성의 날은 여성의 업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쫓겨난 날을 기념하여 1909년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에 영감을 얻은 유럽이 1910년 8월 덴마크에서의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여성의 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11년부터 여성의 참정권, 노동권, 차별 철폐를 외치는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 핀버튼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모음>이 오늘 나누어 드린 핀버튼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여성의 날의 상징에는 빵, 장미 등이 있는데,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배경의 푸른 장미를 통해 여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중앙의 WITH YOU는 '당신과 함께'로, 여성들 간의 연대를 상징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싸웠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모음>이 학내 여성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여성의 날 기념 핀버튼

>>여성의 날이란?

여성의 날은 여성의 업적을 기리는 날입니다.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던 미국 노동자들이 쫓겨난 날을 기념하여 1909년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에 영감을 얻은 유럽이 1910년 8월 덴마크에서의 국제여성노동자회의에서 '여성의 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11년부터 여성의 참정권, 노동권, 차별 철폐를 외치는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 핀버튼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모음>이 오늘 나누어 드린 핀버튼을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여성의 날의 상징에는 빵, 장미 등이 있는데, 빵은 굶주림을 해소할 '생존권'을,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배경의 푸른 장미를 통해 여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중앙의 WITH YOU는 '당신과 함께'로, 여성들 간의 연대를 상징합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싸웠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모음>이 학내 여성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